

5강 극의 특성과 극 문학의 구성 요소

고목

I 함세덕

작품 분석

[앞부분 줄거리] 장마와 폭우로 마을 가옥이 침수된 어느 날 친일파 고리대금으로 부를 축적해 온 마을의 지주인 거북에게 삼대째 내려오는 오백 년 된 행자나무를 처분할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찾아온다. 처남 영팔은 이재민 수용소에서 지내면서 생계를 꾸릴

밀천 마련을 위해 행자나무를 팔 것을 부탁하고, 청년 지도자 하동정은 수재민 구제금으로 행자나무를 기부해 달라고 요청한다.

거북: 그걸 날더러 삼천 원에 팔라구? 그야, 나두 돈은 탐나. 돈을 저 철괘에다 모는 것, 그리고 그 돈을 꺼내서 땅을 사는 것, 사실 그 밖에 나한테 낙이라는 건 없다. 하지만 그렇다구 돈을 위해 선조의 유지를 꺾을 순 없어.

영팔: 하지만 매부, 저 한 그루 나무로 전제민 일가족이 갱생할 수 있다면 돌아가신 할아버님께서도 지하에서 만족하시지 않겠어요?

거북: 둔그럽다. 그게 고인에 대한 손주로서의 예법이나?

처: 여보.

거북: (뻗는 듯이) 가 다구 오늘은.

처: 아-니 여보, 몇 달만에 온사람을……. (동생에게) 언짢게 생각 말어라.

영팔: (일어서며) 누님, 그만 가 보겠우.

처: 너두 어린애처럼, 가라구 했다구 금세 일어서니? 느이 매부 원체가 그런 분 아니냐?

영팔: 또 가 봐야 할 곳두 있으니까……. (마루에서 내려와)매부, 난들 어찌 할아버님의 유언 말씀을 모르겠소? 하지만 소문에 들으니까 매부가 저 나무 이번엔 비신답디다. 기왕 비실 바에야 날 주시라구 한 거예요.

고향 떠난 지 십 년, 한뼘 걸치구 자전거 끌구 땀기여, 장만한 세간 나부래기들 전 쟁통에 다 뺏기구, 그래두 해방되구 독립됐다구 고향이라구 찾아오니, 몸 부칠 집도 없구, 배급 쌀두 없구, 일자리두 없군요. 어린 새끼 늙은 강냉일 잘못 먹구 맹장염이 걸려 널부러졌지만 약 한 봉 사 맥일 돈이 없어요. 예뻐넌 못 먹어 보환 병이 걸렸구……. 몇 번이구 망설이다가 매부 찾아와 사정 애길 한 거예요. (눈물 이 쏟아져 나오므로) 누님, 그만 가보겠우. 안녕히 계슈.

동정: 정 그럴시다면, 저 행자나무라두…….

거북: (떨쩍 뛰며 괴성에 가까운 소리를 낸다.) 해, 행자나무를요?

동정: (태연히) 네, 저 나무는 작년 이맘때 수국 아버지께서 자진해서 해군에 공

출하기로 하셨든 게 아닙니까?그것 때문에 서울 해군 무관부에서 소위가 내려왔구. 역장 군수, 경찰서장을 위시해서 군관민이 전부 나와 이 나무의 장행을 축하

작 품 개 관

- 갈래: 극, 희곡
- 성격: 상징적, 비판적
- 주제: 해방 후 출세 지향적 인물의 욕망과 좌절
-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 특징
 - 상징적 소재를 활용하여 사건 전개
 - 치밀하고 짜임새 있는 갈등과 구성

전체 줄거리

친일 행각과 고리대금업으로 마을의 대지주이자 애국당의 재정부장이 된 거북은 대폭우가 마을을 휩쓴 여름의 어느 날, 해방 직후 미군정 아래에서 당대 정치를 이끌던 오 각하가 마을을 방문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박거북은 이번 기회에 조상에게 대대로 물려받은 행자나무를 베어 바둑판을 만들어서 오 각하에게 바침으로써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 싶어 한다.

오 각하가 마을에 오던 날, 거북은 훗날 자신의 모습을 보이기 부끄러워 대회장에 가지 않고 어머니와 딸 수국을 대회장에 보내 행자나무 기부 의사를 자기 대신 전하라고 시킨다. 그러나 대회장에 다녀온 노모로부터 기부 신청도 안 하고 대회장을 일찍 빠져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북은 몹시 화를 낸다.

자신이 재정부장 자리에서 미끄러지게 된 것을 알게 된 거북은 오 각하에게 행자나무를 기부하기로 했던 것을 취소하고, 화감에 수해 복구를 하고 있는 청년 단원들에게 행자나무를 기부하겠다고 말해 버린다. 얼마 후 정신을 차린 거북은 이내 자신이 한 말을 후회하고 없던 일로 하려고 하지만 가족들과 이웃들의 힘에 떠밀려 결국 행자나무는 거북의 눈앞에서 베어진다.



5강 극의 특성과 극 문학의 구성 요소

고목

I 함세덕

핵심 정리

작품 분석

막 빌려구 하든 참에 역사적인 일항의 정전 방송이 있어, 군함 재료의 공출을 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니까 그때 공출하신 샘치구, 기부해 주십쇼. 새로운 시대에의 온갖 장애물인 일제의 잔재를 뿌리째 뽑아 버리는 것두 될 겜, 일석이조일 것입니다.

거북: 하 선생, 저 나무는 할아버님께서 돌아가실 때 나라를 위해서 유익히 쓰도록 하라고, 아버님께 유언하신 나무요.

동정: 그 유언을 아버님께서 수국 아버지한테 계승시키고 돌아가신 건 아마 이 동래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겹니다. 허지만 수국 아버지께선, 작년 공출을 자진 신청하실 때두 군수와 서장한테 나라를 위해 써 달라구 하시지 안했습니까?

거북: 그, 그땐 어떤 게 내 나라지 사실 분간을 못 했었요. 허지만 이렇게 해방이 돼서, 내선일체란 새빨간 거짓말이구, 우리는 결코 일본 놈의 항국신민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요. 그렇니 이번엔야말로 우리 대한 나라를 위해서 쓸 작정 이요.

동정: 영팔 씨가 저 나무로 가구를 맹글어 갱생할 수 있고, 천여 명 수해 동포가 그 돈으로 구원될 수 있다면, 그야말로 할아버님 유언 말씀을 충실히 이행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거북: 하 선생은 동포 동포 하시지만, 동포엔 전제민과 수재민만 있답니까? 공장 주인두 있고, 상인두 있고, 깡 교장 같은 목사두 있고, 순사 형사두 있고, 또 나 같은 지주도 있요. 나는 이 사람들, 즉 다시 말하면 조선 삼천만 동포들을 다 같이 위해서 쓰구 싶단 말이요. (점점 흥분하여진다.) 목전에서 잠깐 고생하는 전제민 수재민들만이 아니라, 삼천리 우리 금수강산에 사는 삼천만 대한 민족 전부를 위해서 쓰구 싶단 말이요. (하고 마루를 친다.)

동정: (열떨떨하야) 삼천만 전부를요?

거북: 그렇소. (자기 웅변에 스스로 감격하여) 삼천만 전부를 위하는 길이란 뭐겠소? 독립이요. 자주독립이요. 이 독립을 완성시킬 수 있는 분은, 오죽 우리들의 오남익 각하 한 분뿐이요. 그래 나는, 오늘 오 각하의 내임을 기회로, 할아버님의 유언을 따라, 이 행자나무를 각하께 바치기루 했소. (하고 진땀을 씻는다.)

동정: 저걸 갖다 뭘 하시게?

거북: (더 한층 득의양양해지며) 이번 각하께서 서울 시외에다 별장을 지신다 하오. 난 저 나무를 삼분해서, 밑뽕은 화로를 맹글구, 가운데는 바둑판을 맹글구, 웃뽕머리하구, 가장군 장기를 맹글어서, 각하의 사랑에다 헌납을 할 작정이요.

동정: 각하께선 그런 기분, 조금두 반가워하시지 않을 겹니다. - 함세덕, 「고목」

'고목(古木)'의 상징적 의미

'고목'에 대한 인식은 등장 인물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영팔'에게는 생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대상으로, '동정'에게는 동포의 이익을 위한 기부의 대상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거북'에게는 겉으로는 명분과 도리를 내세워 자신의 생각을 합리화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한 아부와 아침의 수단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고목'은 결국 일제의 잔재로 청산해야 할 대상으로 봐야 하고 이를 생계 유지나 공익의 목적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희곡 & 시나리오 비교

희곡

- 무대 상연을 목적으로 함.
- 시간, 장소 제약이 있음.
- 현재형으로 이루어짐.
- 막장을 단위로 함.
- 대사, 행동으로 이루어짐.

시나리오

- 영화 상연을 목적으로 함.
- 시간, 장소 제약이 덜함.
- 장면 번호(#)가 단위임.
- 카메라 기법이나 효과가 중요한 역할을 함.

공통점

- 현재형으로 관객에게 전달된다.
- 대사, 지시문, 해설로 구성된다.
- 인물의 대화와 행동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 작가의 상상력으로 꾸며낸 극문학이다.

이 해 감 상

'고목'은 구시대 잔재의 상징이며, 작품의 시간 배경은 홍수가 쓸고 간 뒤의 수해 복구 때로, 이 또한 주제에 적합한 상징적 시대대이다.

'고목'을 중심으로 한 상징 기법의 활용, 한정된 시간 내에 벌어지는 갈등과 전개, 치밀한 짜임새, 대립되는 갈등 세력 중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는 적절한 힘의 배분 등 능숙한 극작술이 드러나 있다. 특히 극의 후반부에서 거북을 향해 가족과 이웃들이 하나씩 포위하듯 좁혀 들어오며 그의 선택을 강요하는 장면은 무대의 공간성이 잘 배려된 부분이다. 이 과정은 거북에게 있어 고통스러우리만큼 압박적인 것이어서, 마지막 고목이 쓰러지는 순간까지도 다른 사람들의 기쁨과 거북의 아쉬움은 팽팽한 긴장을 이룬다.

▶ 개인의 이익을 위해 헌납을 결정하는 거북